

애플, 수소연료전지 배터리 개발

IT기기 배터리 수명 문제 지적으로 ... 충전 없이 몇 주 사용 가능

애플(Apple)이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일간지 드 스타다르트는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랩탑 컴퓨터의 가장 큰 취약점인 배터리 수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 없이 몇 주 동안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12월26일 보도했다.

애플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에 비해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벼운 반면 충전 없이 몇 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i-Phone)과 아이패드(i-Pad) 등 자사 모바일 기기를 구동한 iOS5에서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업데이트를 실시했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27>